법원사람들

07

2026 July Vol. 495







귀 기울여 듣는 진심
정의를 향한 첫걸음

대한민국법원

QR코드를 통해
법원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Cover story

이달의 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정겨운 이웃이 되어 지역민의 송사를 살뜰히 살피는 군산지원의 매력에 빠져들어 봅니다. 7월에 새겨진 굵직한 역사도 '이달의 법원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소식을 담은 〈법원사람들〉과 함께 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사람들

2026 July Vol. 495

발행일
2026년 7월 1일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편집인
공보관 이도행
편집총괄인
홍보기획관 김태완
편집기획팀
곽인욱, 유수연, 백지연, 신준호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기획·디자인·편집
디앤씨컴퍼니



법원의 울림

06
빛나는 얼굴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마음을 다해 경청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2
현장의 시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4
근처 한 바퀴
하나로 이어진 여름의 섬들
고군산군도 해상 트레킹

16
맛있는 선택
일상에서 마주한 뜻밖의 미식 여정
취향껏 골라 먹는 군산의 멋과 맛

18
성장의 발자취
스텝은 가볍게 동료애는 단단하게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나이스 런



사람들의 하모니

22
사유의 순간
애쓰지 마라, 어차피 안 된다

26
시간의 기억
지중해 푸른 밤, 바다 위에서 만난 가장 찬란한 시간

30
마음의 온기
고양이에게 배우는 게으름의 미학

34
이달의 법원사
7월 법원의 역사, 그 빛과 그림자

40
법원의 하루
희망을 전하는 유쾌한 사법보좌관
김한의 보람찬 오늘

42
법원의 노하우
저도 이게 병인지 아는데, 이젠 고칠 수가 없네요~



일상의 여운

46
우리집 진짜 주인
제 강아지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48
이달의 필사
나를 믿어주는 고요한 여름밤

50
Movie Pick
손끝에 스며든 청량한 진심
영화 〈청설〉

52
Smart Court
함수 몰라도 OK!
말로 시작하는 AI 데이터 분석

54
독자 참여
센스 만점! 법원 N행시 짓기

대법원 채널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7월,
작은 목소리도
파도처럼 닿는 곳에서

짙푸른 수평선 위로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윤슬이 반짝이는 물결 위로 여름 햇살이 쏟아집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듯
시민들이 품은 기쁨도 억울함도 오해도 바람도
법원이라는 바다에 모여들어 새로운 물길을 찾아갑니다.

군산지원은 오늘도 거창한 선언 없이 묵묵히 곁을 지키며
작은 사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입니다.
법정의 단상과 민원실의 창구 사이 어디에서든
군산지원의 하루는 지역민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일로 채워집니다.

사려 깊은 경청이 갈등의 거친 풍랑을 잠재우는 방파제가 되고
공정한 판단이 지친 이들을 품어주는 안전한 항구가 될 때
비로소 법원은 누군가의 삶에 가장 믿음직한 등대가 됩니다.

때로는 정겨운 이웃으로, 때로는 기댈 수 있는 벗으로
누군가의 목소리에 성의를 다하고 있을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깊은 공감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위로가 되고
흔들림 없는 태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July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조영권

(왼쪽부터) 임재은 주무관, 강동훈 행정관, 천태연 주무관, 원도연 판사, 문설하 속기사, 정원 지원장, 전규성 사무과장, 전성은 주무관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마음을 다해 경청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푸른 금강이 흐르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군산. 이곳에 자리 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하 군산지원)은 백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민의 곁을 정겹게 지켜오고 있다.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기보다 묵묵하고 다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군산지원은 오늘도 오래 사귄 벗처럼 시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청사

1908년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 청사 이전 30주년을 맞은 든든한 사법의 보금자리

1908년 광주지방재판소 군산구재판소로 첫발을 뗀 군산지원은 이후 1922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을 거쳐, 1948년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라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72년부터는 군산시 금동의 공관에서 자리를 지켜오다가, 1996년 지금의 청사가 완공되며 비로소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올해는 청사이전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군산지원 가족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군산지원은 익산시법원을 포함해 1개 시법원과 4개의 실·과, 합의부(민사·가사·형사)와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가사재판부를 아우르는 총 25개의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다. 법관 14명을 비롯해 총 111명의 법원 가족이 이곳에서 약 53만 지역민의 사법 서비스를 책임진다. 서른 해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시간만큼, 군산지원은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을 함께 나눠온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중이다.

곳곳에 배어 있는 세심한 손길 오랜 벗처럼 정겨운 청사

청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청사 이전 때 함께 옮겨 온 거대한 향나무가 어서오라며 손짓한다. 거목이 드리우는 널따란 그늘은 고충을 안고 법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안온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30년 전 청사 이전을 기념해 식재한 금송도 법원을 찾는 시민들을 푸르게 반긴다. 작고 여렸던 금송이 우러러볼 만큼 울창하게 자라나는 동안 군산지원도 지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우뚝 성장해 왔다.

세월의 무게답게 청사는 일부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군산지원은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사회와 함께 정을 쌓아 온 오랜 벗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법원 안에 자리한 우체국과 은행 등은 주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 시설이 되었고, 청사 입구에 자리한 북카페는 시민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다. 청사 바닥에는 색깔별로



청사 준공기념 금송 식재 표지석



(왼쪽부터) 천태연 주무관, 정원 지원장, 전성은 주무관, 임재은 주무관

구분된 길 안내 표식이 정성스레 마련되어 있어, 처음 법원을 찾은 사람도 필요한 업무 부처를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작은 나무 한 그루, 바닥의 표식 하나에도 시민의 발걸음을 살피는 군산지원의 다정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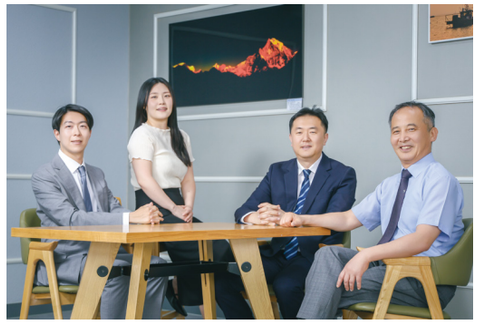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법 서비스 우선지원창구와 끊임없는 환경개선

군산지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법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다. 모든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갈등을 평화롭고 공평하게 풀어내는 일을 중요한 책무로 여긴다.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인 서비스로 구현한 것이 종합민원실 내 우선지원창구다. 법무사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이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시민과 직원 모두에게 더 나은 청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작업도 알차게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민형과 환경 개선 공사와 1층 상황실 개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각 사무 공간 및 민원 공간의 정수기를 교체했다. 올해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법정동 2, 3층 화장실의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북카페도 1개소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지원은 법원을 찾는 이들의 작은 불편까지 살피며 사법 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그리고 사법 신뢰 강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미래를 선도하는 뜨거운 학구열 각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지원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민사·형사·가사재판실무 전문역량강화연구회와 송무·집행·등기·공탁·가족관계등록 실무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실무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문제



(왼쪽부터) 원도연 판사, 문설하 속기사, 강동훈 행정관, 전규성 사무과장

상황과 주요 사례를 함께 발표하고 토론한다.
재판 업무에 필요한 기술 활용 능력과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2025년 9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과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프롬프트', '가상자산'을 주제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도서실에 인공지능 관련 도서를 대량으로 비치하는 등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아리울 봉사회와 아름다운 나눔 활동

군산지원의 다정하고 따스한 마음은 법원 담장 밖에서도 또렷하게 빛난다. 군산지원 봉사동호회 '아리울 봉사회'는 소속 직원들이 매달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관내 사회적 약자단체를 정성껏 지원해 왔다. 올해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인 군산 '성가정의집'과 발달장애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군산의 법조인들이 함께 기부한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가게 행사' 역시 군산지원이 지역과 정을 나누는 또 하나의 따뜻한 방식이다.
가족의 회복을 돕는 발걸음도 다정하게 이어진다. 면접교섭을 진행 중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영원한 가족 하루캠프'는 단절된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지원장이 직접 나서는 고등학교 특강과 학생들의 법원 견학은 사법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동시에, 법원을 지역사회에 한 발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든다.

군산지원은 모든 구성원이 동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평적으로 활발히 소통하는 가족 같은 법원을 꿈꾼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의를 다한다는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다름 아닌 법원 구성원 서로의 마음과 입장을 다정하게 헤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른 해 동안 도탑게 쌓아온 정과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마음을 나누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군산지원은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위) 아름다운 가게 나눔 행사
(아래) 아리울 봉사회의 군산 '성가정의집' 기부금 전달

최상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지원장 **정원**



군산지원만의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가요?
군산지원은 구성원 각자가 특정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그리 많지 않아, 서로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절묘한 규모의 법원이라는 점도 저희 군산지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구성원들은 잡무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상호 간에 인간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퇴근 이후나 주말에 서해안 대표 관광지 군산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한껏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군산지원 근무의 특별한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자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군산지원과 같은 조직 규모는 장점이 많지만, 자칫 잘못 운영되면 애매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지원은 장점을 극대화하여 구성원 상호 간에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각자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사건처리실적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 개개인의 훌륭한 인품과 우수한 역량이 법원의 조직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선배들은 과거 경험이나 업무상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후배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 조직 내에서 수평적으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국민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지만,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군산지원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역민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군산지원은 앞으로도 최상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군산지원 가족들 또한 자신의 역량을 믿고 지금처럼만 계속 나아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INTERVIEW

수면 위로 퍼지는 은빛 물결

은파호수공원은 해 질 녘 저수지에 가둬 둔 물이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 '은파(銀派, 은빛 물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퇴근 후 선선한 바람을 따라 물빛다리를 건너면, 저수지 수면 위로 은빛 물결이 퍼지며 아름다운 수를 놓습니다. 산책로는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걷는 재미도 있지요. 산책로 끝의 물빛다리 광장에서 막걸리와 파전을 즐기는 건 그날의 기분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군산에 방문하면 은파호수공원을 꼭 한 번 거닐어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군산 지원과 금송

1996년 10월 21일, 군산지원 청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어린 금송이 식재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금송은 사람 키보다 작았고 사람 손목만 한 둘레였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이 흐른 지금, 작고 여렸던 금송은 어느덧 그 키가 3층 높이에 다다르고 나무둥치의 둘레가 표지석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습니다.
쑥쑥 자라나는 금송과 함께 군산지원도 쉼 없이 성장합니다. 하늘 높이 가지를 뻗고 땅속 깊이 뿌리내리는 금송처럼 군산지원도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지역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로 이어진 여름의 섬들 고군산군도 해상 트레킹

글. 편집실

새만금방조제를 지나 고군산군도 안쪽으로 들어서면 바다와 섬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다리로 촘촘히 연결된 군도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섬을 거니는 듯한 독특한 매력을 자아내고, 이제 막 열린 '섬잇길'도 바다 위 트레킹이라는 색다른 해상 여행을 선사한다. 사방으로 펼쳐진 청량한 서해 한 가운데서 한여름의 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릴 해방감을 느껴 보자.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황성훈

섬과 섬을 오가는 시원한 도보 여행

- 선유도둘레길 코스(2시간):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 장자교 스카이워크 → 대장도 구불길 → 대장봉 정상
- 고군산섬잇길 코스(4시간): 말도 선착장 → 말도 등대 → 보농도 정상 → 명도 구렁이 전망대 → 광대도 정상 → 출렁다리 → 방축도 선착장

다리로 이어진 네 개의 섬 선유도에서 대장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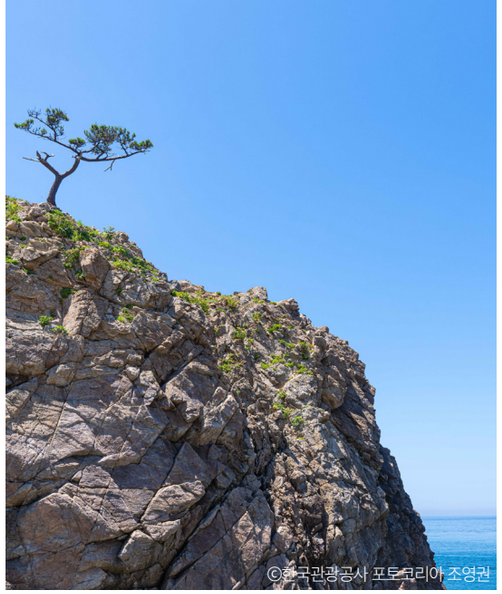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던 자리라는 전설을 품은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한가운데 자리한다. 무녀도와 장자도, 대장도까지 다리로 엮여 있어 네 개의 섬은 하나처럼 오갈 수 있고, 가파른 오르막 하나 없이 해안선을 따라 흘러가는 길은 걷는 이에게도 자전거 페달을 밟는 이에게도 너그럽다.

첫걸음은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떼어 보자. 유리알처럼 맑은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지고, 100m를 걸어 들어가도 물은 허리춤을 넘지 않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도 마음 놓고 발을 담글 수 있다. 해 질 무렵 코발트 빛 바다가 서서히 붉어지는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 장관이다.

선유도에서 장자도로 건너는 길목에 놓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는 발밑으로 검푸른 바닷물이 일렁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위를 걷는 순간의 아찔함과 붉은 노을빛 풍경이 겹치면 이곳은 고군산군도에서 가장 오래 발길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다리 끝에서 만나는 장자도는 고군산군도 유인도 중 가장 작은 섬으로, 몽돌해안과 기암이 어우러진 산책로가 마치 수석 전시관을 거니는 듯한 풍경을 그려낸다.

장자도를 지나 대장도에 이르러 구불길을 따라 나무계단을 오르면 할매바위를 지나 대장봉 전망대에 닿는다. 360도로 트인 시야 안에 선유도와 무녀도, 신시도와 관리도가 한 폭의 그림처럼 들어앉아, 그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잠시 말을 잃는다. 차량의 소음마저 허락하지 않는 이 작은 섬에서, 고요함은 다른 어느 섬보다 깊고 오래 머문다.


©군산지원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조영권

바다가 길을 내어준 곳 고군산섬잇길

말도에서 시작해 보농도, 명도, 광대도를 지나 방축도까지 다섯 개 섬을 네 개의 인도교로 엮은 7.2km의 바닷길이 드디어 모두 열렸다. 해상 트레킹 코스 고군산섬잇길을 걷다 보면 서해의 탁 트인 조망과 거친 파도, 섬마다 다른 얼굴의 자연이 고스란히 몸에 와닿는다.

장자도에서 여객선에 오르면 길의 입구는 두 갈래로 열린다. 종점인 말도에서 내려 내륙 방향 쪽으로 걷는 길도 좋지만, 한 정거장 앞선 명도에서 내려 먼바다를 향해 걸어 나가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안긴다.

'끝섬'이라 불리는 말도에는 100년 넘게 서해를 지켜온 등대와, 바위틈에 뿌리내린 '천년송'이 길의 첫 장면을 그려낸다. 308m 인도교를 건너면 물빛이 유난히 맑은 명도에 닿는다. 오진여 전망대에서는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바닷길이 발걸음을 붙잡고, 구렁이 전망대에 오르면 섬의 정상에서 바다를 굽어볼 수 있다.

광대도를 지나 방축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3m의 출렁다리를 건너야 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출렁다리 위를 걷다 보면 어느새 방축도의 명물인 독립문 바위가 시야 가득 차오르고, 청아한 여름빛으로 물든 동백숲길과 작은 해변 산책로는 여행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고군산섬잇길은 아직 임시 개통 단계인 만큼 고요하고 안온하다. 정식 개통이 시작되기 전 인적이 드문 다섯 섬에서 맑은 여름날 해상 트레킹의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

일상에서 마주한 뜻밖의 미식 여정 취향껏 골라 먹는 군산의 멋과 맛

근대의 멋을 간직하고 있는 군산에는 볼거리만큼 먹거리도 다양하다. 군산 여행 중 마주하는 여러 가게 앞에서 어떤 메뉴로 허기를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면, 군산지원 가족들이 인증한 맛집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 정감 넘치는 한상차림부터 매력적인 이탈리안까지, 내 취향을 저격하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자.

식당 추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채숙하 주무관, 이권열 주무관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정성 가득 한상차림
깐치뎅이

군산 외곽의 한적한 회현면에 자리한 '깐치뎅이'. 시내와 다소 떨어져 있어 이 외진 곳에 누가 올까 싶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깐치뎅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예로부터 까치가 많이 살아 붙여진 회현면의 옛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정겨운 이름만큼이나, 나물정식의 맛도 꼭 어머니의 집밥처럼 자극적이지 않게 입맛을 돋운다.

한상차림으로 나오는 나물정식은 반찬의 개수가 열 가지가 넘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각종 제철 나물이 맛깔나게 조물조물 무쳐서 나오고, 군산의 명물인 담백한 박대구이도 상에 놓인다. 바로 볶아 따뜻하게 내놓은 제육볶음도 일품이다. 메인 찌개는 청국장과 새우 시래기 매운탕 중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이 훌륭하다. 큰 그릇에 청국장과 나물을 넣어 촉촉하게 비벼 먹을 땐 다채로운 맛에 절로 웃음을 띠게 된다. 마무리로 구수한 숭늉까지 들이켜고 나면 최고의 점심 한 상 완성이다.

알려드립니다

- 전북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78
- 건강 나물정식 한상차림 2인 32,000원, 3인 44,000원, 4인 56,000원
- 11:00~14:30
  *매주 목요일 휴무
- 063-466-022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채숙하 주무관

과거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
파라디소90

관광객들로 붐비는 영화동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레스토랑 '파라디소90'이다. 외관은 낮은 현대식 건물이지만, 실내에 들어와 천장을 보면 적산가옥(일제강점기의 일본식 주택) 고유의 특징이 드러나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표 메뉴 '파스트라미 & 브리치즈 샌드위치'는 모든 테이블마다 놓여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담백하게 구운 빵 사이에 생 햄과 치즈를 넣었을 뿐인데 풍미가 가득하다. 우유의 고소함과 해산물의 감칠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마레 크레마 파스타와 신선한 재료가 듬뿍 올라간 화덕 피자도 놓칠 수 없다. 피자를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도우가 먼저 씹히고, 이어 토마토소스와 야채, 부팔라 치즈의 맛이 입 안 가득 퍼진다.

파라디소90 일대는 군산의 '리터닝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거리로, 감성 가득한 카페와 재즈 바, 젤라또 가게 등 함께 둘러볼 곳이 많다. 군산에 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길 바란다.



알려드립니다

- 전북 군산시 구영4길 24, 1호
- 파스트라미 & 브리치즈 샌드위치 15,500원, 마레 크레마 파스타 21,500원, 부팔라 치즈와 루꼴라 피자 32,000원
- 11:30~22:30
  *브레이크타임 15:00~17:00
- 063-450-4540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이권열 주무관

스텝은 가볍게 동료애는 단단하게 함께 성장하는 우리의 나이스 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러닝크루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강물 위로 부서지기 시작하는 화요일 저녁,
땅을 박차고 나가는 발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진다.
군산지원 러닝크루가 만들어 내는 힘찬 하모니다.
오직 달리기만으로 몸과 마음의 성장을 이뤄내는
군산지원 러닝크루, 이들의 시원한 완주를 쫓아가 보았다.





정해진 규칙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원칙은
'절대 다치지 않게,
각자의 페이스에 맞는
그룹과 함께 즐겁게
달리는 것'이다.

혼자보다 함께이기를 바라며

모든 러너에게는 처음 신발 끈을 묶던 순간이 있다. 군산지원 러닝크루의 출발선은 백승광 행정관과 배민지 주무관의 작은 바람 안에 있었다. 혼자 달리는 시간이 주는 막막함과 지루함을 넘어, 함께 땀 흘리며 건강한 러닝 라이프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모임의 첫걸음이 됐다. 뜻이 맞는 7명의 초기 멤버가 모여 코스와 규칙을 정했고, 법원 동료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동호회는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 되면 러닝크루 회원들은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금강변이나 은파호수공원에 모여 몸을 풀기 시작한다. 신생 동호회라는 짧은 역사가 무색하게, 현재는 25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여름에는 외부 러닝이 힘들지 않겠냐고 회원들에게 묻자, 모임 시간을 조금 늦춰 해가 떨어진 후 달릴 계획이라며 웃어 보였다.

"군산에는 노을이 아름다운 금강 강변길이 있습니다. 일과 후 노을 지는 강변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리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러닝에 대한 사랑이 엿보이는 백승광 행정관의 말처럼, 출발선에 서는 순간은 언제나 그 자체로 작은 위로가 된다.

각자의 속도로, 함께 그리는 풍경

인생도 달리기도, 모두가 반드시 같은 속도로 달릴 필요는 없다. 군산지원 러닝크루도 페이스에 따라 5~6분대의 중급자, 7~8분대의 초급자, 9분대 이상의 입문자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에게 맞는 속도로 50분여를 달린다. 처음 합류한 회원에게는 먼저 부상 방지를 위한 자세와 호흡법을 알려주고, 천천히 함께 달리며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해진 규칙은 따로 없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단 하나의 원칙은 '절대 다치지 않게, 각자의 페이스에 맞는 그룹과 함께 즐겁게 달리는 것'이다.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한 초보자 최진솔 주무관은 이러한 함께 달리기의 효과를 업무로까지 연결한다. "정기적인 러닝으로 다져진 체력 덕분에 장시간 업무에도 쉽게 지치지 않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동료의 발걸음 소리가
더해지면 끝까지
완주할 힘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배우고 있다.



달리는 동안 스트레스와 잡념이 비워지면서 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많은 회원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함께 발을 맞추는 50분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다음 날을 버티는 회복의 시간이 되고 있다.

정직한 노력이 만드는 올곧은 성장

러닝은 요행이나 화려한 장비가 통하지 않는, 지극히 정직한 스포츠다. 오직 두 다리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순간을 버텨내야 비로소 완주선을 넘을 수 있다. 배민지 주무관은 바로 이 점이 러닝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어제보다 단 100m를 더 달렸든, 단 10초를 단축했든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정직한 경험이 삶 전체에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1km를 뛰는 것조차 버거워했다는 백승광 행정관 역시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 극복의 경험을 통해 내면이 단단해짐을 느꼈다. 묵묵히 내딛는 발끝에서 마주하는 성장은 일상과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더 능동적이고 단단하게 뒤바꿔 놓았다. “하루 500m, 1분씩 더 달리는 정직한 노력을 통해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러닝을 시작한 뒤로 정말 신기하게 일상의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잘 풀려나가는 기분입니다.”

함께 뛰어넘을 더 먼 거리

신생 동호회임에도 왕성히 활동하며 회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러닝크루는 ‘행복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자타공인 군산지원을 대표하는 동호회’라는 자부심을 숨기지 않는다. 달리기로 다져진 인연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진다. 분기별로 회식을 겸한 정기 모임을 열어 그동안의 땀과 노력을 돌아보는가 하면, 때로는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는 소소한 번개모임을 통해 법원 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동료애를 쌓아 가고 있다.
이들의 곁에는 늘 함께 달리는 동료가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혼자서는 쉽게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동료의 발걸음 소리가 더해지면 끝까지 완주할 힘이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배워가는 중이다.
군산지원 러닝크루의 시선은 이제 가을에 있을 ‘제25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를 향한다. 서로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약속.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감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이들의 건강한 바람은 군산지원 러닝크루가 그리는 가장 먼,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완주선이다.







(왼쪽부터) 백승광 행정관, 배민지 주무관, 박동영 주무관, 최진솔 주무관, 정은지 주무관

애쓰지 마라 어차피 안 된다

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태균 부장판사



1

매년 12월 31일 밤이 되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적이고 고결한 '나름 지식인'의 표정을 지은 채 다이어리를 펼친다. 만년필촉에 힘을 주어 아주 멋지게 새해 다짐을, 그것도 영어로 적어 내려간다. "Eat less. Speak less. Think less." 덜 먹고, 덜 말하고, 덜 생각하자. 이른바 내 인생의 '삼소(三少) 프로젝트'다.

인간의 불행은 대개 이 세 가지를 과하게 해서 생긴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고, 과언(寡言)하지 못함은 결국 말실수로 이어지고, 과도한 생각은 인간을 불안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 아. 이 얼마나 위대한 삶의 철학인가!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간결한 문장으로(그것도 영어로) 표현했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것만으로 내 자의식은 이미 플라톤이나 칸트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는 황홀함에 빠진다.

"Eat less. Speak

20년 동안
지키지도 못할
다짐을 해대고 나니
마침내 아주 중요한
실존적 깨달음이 왔다.
"노력하지 마라.
지금까지 안 됐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러나 신은 공평하다. 내게 지적인 허세는 듬뿍 주었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갸륵한 성정은 깜빡하고 빠뜨린 게 틀림없다. 올해로 딱 20년째, 나는 이 다짐을 단 하루도 지킨 적이 없다. 20년이다, 20년! 이쯤 되면 실패가 아니라 내 삶의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봐야 한다.

2

특히 "Eat less."의 역사에는 치욕스럽고 값비싼 유물이 하나 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즈음, 나는 백화점의 어느 명품관에서 눈이 뒤집혀 007의 제임스 본드나 어울릴 법한 슬림 핏 셔츠를 하나 샀다. "손님, 이건 몸을 좀 만드셔야 맞겠는데요."라는 점원의 무시(혹은 치밀하게 계산된 상술)에 오기가 발동해 덜컥 카드를 긁어버렸다. 지난날 날렵했던 실루엣을 추억하며, 딱 5kg만 빼면 입을 수 있다고 소비를 정당화했다.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 셔츠는 옷장에 부적처럼 걸려, 매년 1월 1일마다 나를 괴롭혔다. "도대체 살은 언제 뺄 것이냐?"라고 채권 추심하듯 나를 채근했다. 회식의 즐거움과 야식의 마력 앞에서 내 이성은 빛의 속도로 증발했다. '음식은 칼로리가 아니라 행복의 총량이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매일 밤 야식 파티는 메뉴를 바꿔가며 계속됐다. 매년 봄이 오면 아내는 옷장을 열 때마다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한마디 툭 던진다. "저 셔츠는 언제 입을 거야? 몸에 들어는 가?" 아내의 팩트 폭행은 언제나 예리해서 뼈가 시리다. 결국 그 셔츠는 10년 넘게 소매 한 번 꿰어보지 못한 채, 세월의 무게만큼 누리끼리해진 채 의류 수거함으로 들어갔다.

"Speak less."는 또 어떤가. '나름 지식인'인 나는 작은 질문에도 장편 소설처럼 말한다. 며칠 전 저녁 식탁에서도 사춘기를 아주 '씨게' 보내고 있는 아들의 "학교는 왜 다니느냐, 학교는 언제 생긴 거냐."라는 푸념 섞인 물음에, 무상교육을 주장한 프랑스의 계몽철학자 콩도르세부터 시작한 답변은 독일

less. Think less."

과 프랑스의 교육 이념 차이와 일본을 통한 서양 교육 개념을 도입한 개화기까지 이어졌다. 아들의 한숨과 장미칼 같은 아내의 눈초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기 망정이지, 현대 교육철학의 경향까지 이어졌다면 나는 밥도 다 못 먹고 식탁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가장 최악은 "Think less."다. 생각을 줄이기는커녕 침대에 누우면 온갖 망상과 공상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비트코인이 10만 원일 때 샀더라면 지금쯤 호텔에서 살고 있을 텐데….', '늙으면 누가 나랑 놀아주나'부터 시작해서 '태양이 수명을 다해서 팽창하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까지 온 우주적 오지랖이 발동한다. 뇌세포가 밤새 축제를 벌이니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 무겁다.

3

그렇게 20년 동안 지키지도 못할 다짐을 해대고 나니 마침내 아주 중요한 실존적 깨달음이 왔다.

"노력하지 마라. 지금까지 안 됐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원래 인생이란 건 가만히 놔둬도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온갖 사회적 이목, 체면, 도덕적 의무, 타인의 시선과 같은 것들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혀 있으니 복잡할 수밖에 없다. 까딱하다가는 걸려 넘어지기 일쑤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한 진짜 핵심은 이 꼬여버린 인생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제 와 돌아보면 나는 '이 다짐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만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가짜 확신에 속아 스스로를 괴롭혀 온 것이다. 내가 만든 새해 다짐이 나를 꽁꽁 묶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완벽하게 다이어트나 묵언수행을 해 낼 것이라고 무슨 수로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는 책 속에 파묻혀 사념과 번뇌로 가득 찬 두목을 향해 말한다. "당신은 한 가지만 빼고 다 가졌소. 그건 바로 광기요. 사람이 광기가 없으면 감히 자신을 묶은 로프를 잘라내어 자유로워질 엄두를 내지 못하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 조르바의 광기였다. 20년 동안 나를 꽁꽁 묶고 있던 새해 다짐이라는 구차한 로프를 잘라버릴 단 한 번의 무모함 말이다.

언젠가 박찬욱 감독의 인터뷰를 보다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무겁고 지독한 탐미주의 영화를 만드는 거장의 좌우명이 고작 '아님 말고'라는 것이다. 밤새 지독하게 고민하며 콘티를 짜다가도, 현장에서 막상 찍어보고 이상하면 미련 없이 털어버린다. '아님 말고'. 아, 이 얼마나 조르바다운 위대하고 단순한 삶의 경지인가!

내가 지난 20년간 불행했던 이유는 '아님 말고'의 광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슬림 셔츠가 안 맞으면 '아님 말고'하고 바로 남에게 줘버려야 했다. 적게 먹고, 적게 말하고, 적게 생각하겠다는 그 알량한 결심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님 말고'하며 털어버렸어야 했다. 학교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니, 노력해야 한다느니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정작 배워야 할 것은 내 생긴 꼬라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약간의 대범함과 작은 용기였다. 무상교육의 폐해다. 돈을 안 냈으니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Eat, Speak, Think.

내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건 무책임한
도망이 아니라
내 소중한 오늘을
구원해 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나는 20년 묵은 다이어리의 그 잘난 영어 문장들을 매직으로 박박 지워버리려고 한다. 대신 복잡한 세상에 맞서는 가장 단순한 무기를 새로 쓸 것이다. "지금 먹어라. 죽으면 못 먹는다." "떠들 수 있을 때 떠들어라. 남 욕만 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는 것은 돈 들지 않는다."

인생 별거 없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 앞에서 열어달라고 애걸복걸 말자. 절대 안 열어준다. 나만 비참해진다. 그냥 생긴 꼬라지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 만나 침 튀기며 수다 떨고, 밤에는 대충 넷플릭스나 켜 놓고 온갖 헛된 생각을 하며 잠들면 그만이다. 잘나고 거창한 무엇을 이루는 삶, 그런 건 다음 생에 해도 된다. 내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건 무책임한 도망이 아니라 내 소중한 오늘을 구원해 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름 지식인"을 지향하는 만큼 내게도 문체는 있습니다. 이 글은 내 문체가 아닙니다. 작정하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의 스타일을 흉내 냈습니다. 일종의 오마주라고나 할까요.
제법 잘 따라했다고 만족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님 말고요.

As much as you want."

지중해 푸른 밤, 바다 위에서 만난 가장 찬란한 시간

글. 서울행정법원 김보미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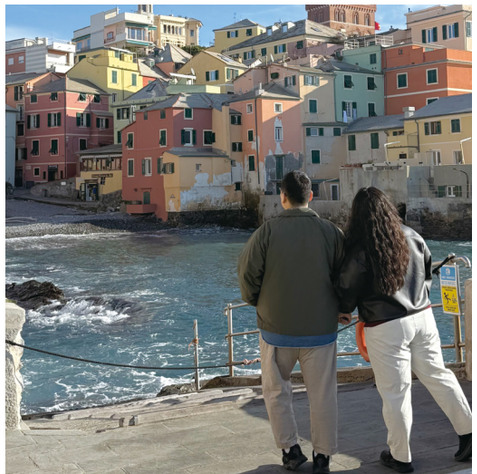
사람들은 크루즈 여행을 은퇴 후에나 떠나는 지루하고 비싼 여행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언젠가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즐기는 여행. 크루즈는 늘 그런 로망으로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잘한 선택은 그 여행을 미루지 않은 것이었다.

크루즈는 선내에서 다양한 시설과 액티비티를 즐기고, 기항지마다 직접 걸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과 활동량이 필요한 여행이었다. 무엇보다 젊을 때의 설렘과 감성으로 마주한 끝없는 바다와 낯선 도시의 풍경은 더욱 깊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

이번 여행은 로마에서 출발해 시칠리아, 몰타,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제노아를 거쳐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서부 지중해 7박 8일 크루즈 일정이었다. 22년 지기 내 친구와 함께 첫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서부 지중해 크루즈를 1인 86만 원에 떠날 수 있다고?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된 건 우연히 발견한 가격 때문이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해결하고, 해외 크루즈 예약 사이트(cruisedirect.com)에서 MSC 월드 유로파 서부 지중해 7박 8일 일정을 2인 기준 172만 원에 예약했다. 1인당 86만 원. 예약이 잘 된 건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그 금액 안에는 이동, 숙박,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뷔페와 코스 레스토랑, 수영장과 각종 시설, 그리고 매일 밤 달라지는 공연까지 포함돼 있었다. 기본 객실인 인사이드 캐빈으로 예약한 뒤, 크루즈 비딩에 참여했다.



비딩이란 더 높은 등급의 객실로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는 승객이 추가 금액을 제안하는 일종의 경매 방식인데 최소 금액인 250달러, 약 35만 원을 제시했더니 야외 테라스가 딸린 발코니 룸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덕분에 우리의 첫 크루즈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지중해를 마주하는 여행이 되었다.

내 생의 첫 크루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처음 월드 유로파를 마주한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로마 치비타베키아 항구에서 처음 마주한 MSC 월드 유로파는 상상했던 배의 크기를 완전히 넘어선, 바다 위에 떠 있는 눈부신 미래 도시 같았다. 길이 333m, 높이 77m, 20층 규모에 무게만 21만 톤.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약 9,000명이 함께 탑승하는 이 거대한 크루즈는 하나의 리조트가 그대로 바다 위에 옮겨져 있는 듯했다. 15개의 레스토랑과 20개가 넘는 바와 라운지, 공연장, 실내외 수영장과 월풀, 자쿠지까지 합치면 20개가 넘는 시설에 카페, 맥주 양조장, 카지노와 바버샵까지 있으니 말이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벅찬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7박 8일 지중해 바다 위에서 보낸 시간

로마를 출발한 MSC 월드 유로파는 천천히 지중해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고 배 위에서 바라본 첫 노을은 여행의 시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갑판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는 설렘 때문인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다른

‘아, 지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거창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cruise four

여행보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다. 어떤 날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어떤 날은 짙푸른 물결이 조용히 일렁였다. 우리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일출을 바라보았다. 굳이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지중해만으로도 마음이 가득 차올랐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나라와 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칠리아에서는 따뜻한 햇살과 여유로운 골목 풍경 속에서 남부 이탈리아의 매력을 만끽했다.
몰타에서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석조 건물들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졌다.
바르셀로나는 살아 있는 예술 그 자체였다. 가우디의 건축물이 도시 곳곳에 숨어 있었고, 거리마다 음악과 색채가 넘쳤다. 해 질 무렵 붉게 물든 바르셀로나의 하늘은, 아마 이번 여행에서 가장 선명하게 눈에 새겨진 장면이었다.
마르세유에서는 항구를 따라 걸으며 프랑스 남부 특유의 낭만을 느꼈다.
제노아에서는 오랜 역사가 담긴 골목과 건축물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배로 돌아오면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고, 공연장에서 화려한 쇼를 관람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매일 다른 나라, 다른 도시를 만났지만, 여행의 중심에는 언제나 바다가 있었다. 낮에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저녁에는 노을로 물들고, 밤에는 별빛을 품은 지중해의 풍경이 매일 새롭게 다가왔다. 특히 밤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은 크루즈 여행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밤, 갑판 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평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귓가를 스쳤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지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거창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지금까지 27개국을 여행하며 수많은 풍경을 만났지만 그날 밤 지중해 위에서 느꼈던 고요한 행복은 다른 어떤 풍경보다 깊게 마음속에 남아있다.

크루즈 여행은 다리 떨릴 때 말고 가슴이 설렐 때

7박 8일 동안 우리는 4개국 6개 도시를 만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에 남는 것은 도시의 이름보다 바닷바람의 온도였고, 관광지보다 함께 바라보던 노을의 색이었다.

여행이 끝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지중해가 떠오른다. 끝없이 이어지던 푸른 수평선, 따뜻하게 스쳐 가던 바닷바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했던 반짝이는 시간들. 그 푸르던 바다와 찬란했던 순간들은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다음 항해를 꿈꾸고 있다. 더 큰 자연을 만나기 위해, 더 넓은 바다를 바라보기 위해. 언젠가 알래스카의 빙하가 펼쳐진 바다 위에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이 설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출근하지 않아도 추앙받는 삶

고양이에게 배우는 게으름의 미학

글.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아영 주무관

정문 앞에 검은 턱시도를 입은 고양이가 오늘도 마중을 나왔다. 길고양이답지 않게 검은 털에서 윤기가 흐른다. 영국의 근위병처럼 충실한 자세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는다. 한 발 다가서려 하면 금세 "미야옹~" 하며 경계심을 표시한다. 적당한 거리를 존중해 달라는 듯 턱시도 고양이는 쉽사리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 법원관리대원 옆에서 먹이를 달라고 가르릉거린다. 장난감으로 놀아 주는 응대에 앞발을 휘두르며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어쩐 일인지 요즘은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내 주변만 그런 건지, 반려동물이 일상화된 세상인지 모르겠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이 키우는 반려묘의 사진을 보여주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다.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강아지만큼 분주하진 않은 모양이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진 속 고양이들도 포실포실하게 살이 올라 있다. 햇빛이 거실 마룻바닥 위로 해시계처럼 길게 내리쬐면 그곳이 자신의 영역인 양 바닥에 나른하게 누워 낮잠을 즐긴다. 이쯤 되면 "다음 생엔 이렇게 지극정성 돌보아 주는 가정집의 냥이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 출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어오지 않는데 존재만으로 추앙받는 묘의 삶.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퇴근길에 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 작은 규모의 인쇄소에도 고양이가 산다. 얼룩 젖소 무늬를 가진 녀석은 늘 심드렁한 표정으로 행인을 훑는다. 미묘라 할 순 없는 찐빵처럼 눌린 얼굴이지만 그래도 애교가 있다. 가끔 인쇄소 밖으로 나들이를 나오면 녀석과 마주친다. 그럴 때면 내 다리 옆으로 엉덩이를 들이밀고 부비면서 스킨십을 한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의 표시를 한다. 인쇄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매번 쭈그려 앉아 유리창을 '톡톡' 두들겨 인사를 한다. 앞발을 들어서 나의 부름에 화답해 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사료를 듬뿍 놓아둔 그릇에 눈길이 간다. 또 다른 생명체를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넉넉한 씀씀이가 보기 좋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의 표시를 한다. 인쇄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매번 쭈그려 앉아 유리창을 '톡톡' 두들겨 인사를 한다.

뒤편 주차장 담벼락 위에서도 고양이가 종종 일광욕을 즐긴다. 담의 높이가 제법 높은 편인데도 곡예를 하듯 아슬아슬, 투실한 몸을 담벼락에 잘도 걸치고 있다. 요즘 구청 측에서 길고양이들을 위해 추적 시스템을 달아놓는 것인지 목에는 알 수 없는 인식표가 메달처럼 걸려 있다. 램프처럼 빨갛게 점멸하는 불빛에 호기심이 일렁인다. 사뿐사뿐 다가가서 목에 달고 있는 신호 장치를 좀 더 살피고 싶다. 그러나



귀여운 고양이

"다음 생엔 이렇게
지극정성 돌보아 주는
가정집의 냥이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 출근도
하지 않고,
돈도 벌어오지 않는데
존재만으로 추앙받는 묘의 삶.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꼬마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얼룩 고양이



꼬마 고양이

녀석은 금세 양쪽 귀를 쫑긋하며 기척을 눈치챈다. 이렇게 예민한 반사신경을 가졌는데 무슨 수로 목에 인식표를 채운 것일까. 요즘 동네 골목마다 캣맘들이 길냥이들을 위해 보금자리와 캔 사료를 갖다 둔다. 새끼를 밴 것처럼 배가 뽈록하게 불러 있다. 이제 탐정처럼 고양이의 뒤를 쫓던 발걸음을 집으로 돌린다.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고양이에 대한 사심을 밖에서 가득 채우고 돌아간다.

어느 겨울의 끝 무렵, 수풀 속에서 반딧불 같은 노란 동공을 보고 발길을 멈췄다. 땅거미가 내리자 행인을 불러세우는 검은 고양이. 날렵한 몸이 까매서 '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내가 보도블록을 걷는 동안 탄이는 지형물에 몸을 숨긴 채 사냥감을 쫓듯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왔다. 눈동자는 금세 자취를 감추었다가 다시 수풀 속에서 노란 광채를 드러내며 앞서갔다. 걷는 동안 "탄아~"하고 부르면 "먀옹" 화답까지 해 가면서 우리는 150미터가량을 동행했다. 수풀길이 끊기자 큰길가에서 녀석은 걸음을 멈췄고, 그 앞에는 편의점이 있었다. 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매대를 훑었다. 츄르나 캔 사료를 찾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인간이 먹는 참치캔밖에 없었다. 결국 빈손으로 나오게 됐다. 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검사라도 하듯 빤히 나를 쳐다보더니 몸을 홱 돌려 도도하게 걸어갔다. 나는 주섬주섬 가방을 뒤지면서 탄이를 쫓았다. 천하장사 소시지 하나가 손에 잡혀서 껍질을 깐 후에 녀석의 콧잔등에 대고 흔들었다. 츄르가 아님을 알아챈 탄이는 꼬리를 세우고 유유히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탄이와 동네에서 다시 마주친 일은 없었다. 아마 그때 녀석이 내가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발뒤꿈치를 밟고 따라와 주었다면 지금쯤 나는 집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고양이를 쫓는 시선은 어느새 세계의 길고양이들로까지 확장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를 읽다가 그리스의 섬들을 배경으로 한 대목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언젠가 가고 싶은 나라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주저 없이 그리스 섬을 고르고 싶다. 바다를 둘러싼 동네의 지형도 좋고, 파란색 지붕에 하얀 건물, 그리고 새하얀 담벼락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다. 시원한 풍경의 한편엔 고양이들이 주인처럼 거리를 거닐고 있다. 사람이 주인일까 고양이가 주인일까. 어쨌든 두 생명체가 어울리는 모습이 정겹다. 그곳에서는 서두르는 일 없이 느지막하게 일어나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내려 벤치에 앉아 느긋이 걸어가는 고양이를 언제까지고 바라보며 유유자적 하루를 보낼 것이다. 게으른 그리스의 한량으로 사는 것도 꽤 근사한 일일 것 같다. 물론 당장 그곳으로 떠날 수는 없겠지만, 출근길 정문에서 맞아주는 턱시도 고양이와 인쇄소의 얼룩 고양이, 그리고 탄이 덕분에 나는 종종 일상의 걸음을 늦추는 법을 생각해 보곤 한다.



7월 법원의 역사, 그 빛과 그림자

글. 고선미 기록연구관(법원도서관)



'7월' 하면,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 개의 기억이 공존합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주권을 온전히 빼앗기기 전 그림자가 드리운 달이고,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며 진정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난 빛의 달이기도 합니다. 7월에 있었던 사법의 역사 속 빛과 그림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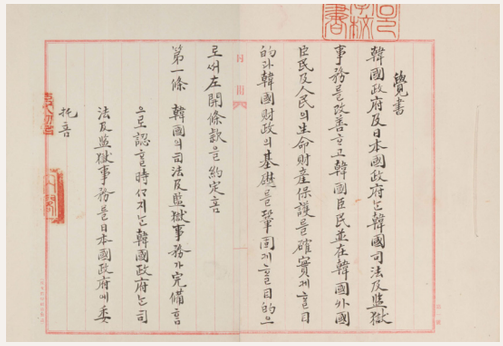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한 후 재판을 받았던 곳은 만주 뤼순에 위치한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이었습니다. 의거가 일어난 만주 하얼빈은 청나라 영토였으나 당시 러시아가 조차하여 관리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러시아나 청나라 법정 혹은 피고인의 나라인 대한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안 의사는 왜 일본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안 의사의 거사 다음날인 1909년 10월 27일, 일본 외무대신은 만주지역 중대범죄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일본 관동도독부에서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1908년 마련된 '만주에서의 영사재판에 관한 법률(일본 법률 제52호)'에 근거한 것으로, 안 의사는 대한제국의 백성이므로 일본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1909년 7월 12일 체결된 '기유각서(己酉覺書)'에 기인합니다.

일제는 우리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기 일 년 전,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라는 내용으로 사법권을 빼앗았습니다. 1909년 10월 말 전국의 재판소는 문을 닫았고 11월 1일부터 그 자리에 통감부 재판소가 들어섰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영사는 러시아로부터 안 의사의 신병을 넘겨받아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안 의사는 "나는 대한국 의병참모중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한 것이니, 만국공법(萬國公法)에 따라 전쟁포로로 대우하라."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반 살인범으로 취급하며 일본 형법[1]을 적용하여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국민을 우리의 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사법의 시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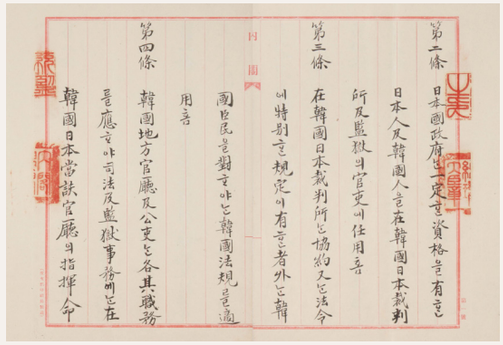
1) 제199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각서

한국[2]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법 및 감옥 사무를 개선하고 한국 신민과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과 인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확실케 할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케 할 목적으로써 다음 조항을 약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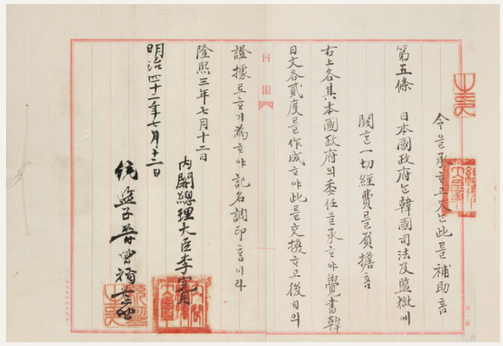
제1조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가 완비함으로 인정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함



제2조 일본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에 임용함

제3조 한국에 있는 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국 신민에 대해서는 한국 법규를 적용함

제4조 한국 지방관청과 관리는 각 그 직무를 따라 사법 및 감옥 사무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 당해관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이를 보조함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함

위 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이어 각서 한글, 일문 각 2부를 작성하여 이를 교환하고 후일의 증거로 하고자 기명, 조인함

융희3년 7월 1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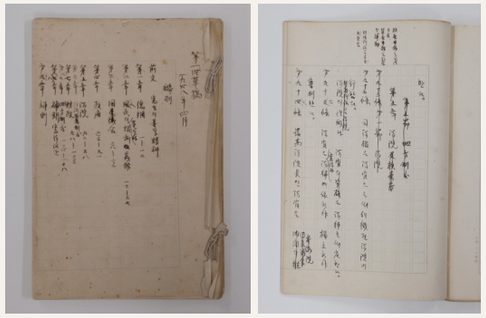
명치42년 7월 12일 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

기유각서(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3]

2) 대한제국 정부.

3)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함.

1945년 광복을 맞았으나 미군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군정은 그 하위에 사법부(司法部)를 두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 사법부가 마침내 삼권분립을 운위하는 사법부(司法府)로 독립된 것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에 따릅니다. 제헌헌법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서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지며 삼권분립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유진오, 권승렬의 초안을 저본으로 제정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헌헌법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에는 '6.25동란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법령 등 원부의 사본을 관보 등의 근거서류에 의하여 1963. 8. 15.작성하였음'이라는 메모가 날인된 사본이 있습니다. 국회에는 1948년 7월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것으로 보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안(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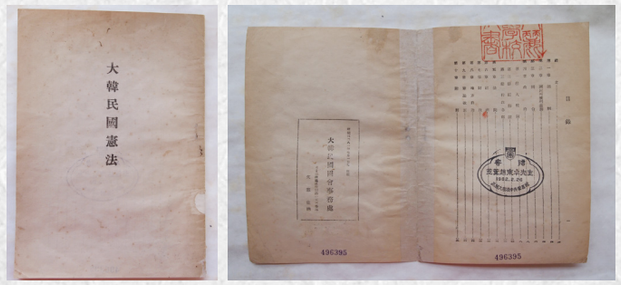
제5장 법원

제95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6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헌헌법 사본(국가기록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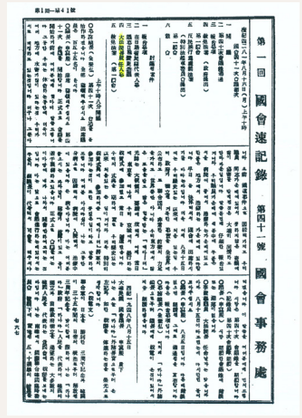
국회사무처 간행, 대한민국 헌법(고려대학교 법학도서관 소장)

하지만 건국 당시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사법부를 행정부의 하위조직으로 길들이려 했습니다. 이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무료변론을 함께한 애산 이인(李仁)은 "가인(街人) 김병로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 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법무부장관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법조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7월 말 초대 대법원장으로 내정되어 8월 5일 국회 승인을 받고[4], 같은 달 16일 국회에서 대법원장 취임인사를 하였습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4) 대법원장 김병로씨 117대31로 인준(조선일보, 1948. 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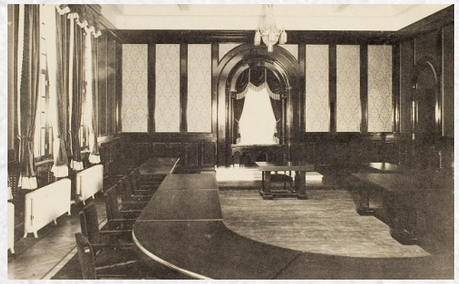


김병로 대법원장의 국회 취임인사
(제1회 국회속기록 제41호, 781~783쪽)

(전략)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법질서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 중책을 맡아 수행하는 동안에 **사법부의 운영 방침**으로서 가장 중대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법권의 엄정한 독립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영향이나 행정부 등 타 부처의 간섭,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도 철저히 독립되어야 하며, 재판에 어떠한 사사로운 정실이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 문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법관들의 확고한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법관의 자기 인격 수양과 청렴결백의 유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할지라도 우리 법관들만큼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인격을 닦아야 하며,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국민의 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엄정하고 적당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만 추락한 사법부의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 사법부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 시대에 적절하고 적용하기에 훌륭한 법률들을 속히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법관이 재판하려 해도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올바르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엄정한 사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략)



중앙청(국가기록원 소장)



서소문 대법원청사 회의실(사이토 기념관 소장)

그러나 대법원장은 국회 취임인사 후에도 근 한 달 동안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법권을 행사하던 미군정과의 인수인계 협상이 지연되어 대법원장은 중앙청 사법부장실에서 업무를 보았고 9월 13일에 비로소 서소문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정식으로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5]

5) 2015년부터 이날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기념하고 있음. 당시 취임훈시는 1948년 9월 14일 자 언론보도나 이듬해 간행된 『법조협회잡지』 창간호의 서두에 언급된 것을 참고할 만함.

김병로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의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구가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입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았습니다. 1956년 2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22회 국회 개회식에 '대통령 멧세-지'를 보냈습니다.

> *사법부에 재판관 되는 사람들은 세계에 없는 권리를 가지고 행세하고 있으니…판결은 법행과 상관이 없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 번이니 이래 가지고는 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략) 다행히 대법원장이 그 폐단을 깊이 양해해서 무슨 중대한 문제가 생길 적에는 행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위신과 법을 공평히 참고해서 판결을 하는 까닭으로 큰 위험은 없는 것이나…*[6]

다음날 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메세지 중 '대법원장이 중대한 문제가 생길 때 행정부와 협의해서 재판한다.'라는 문구에 주목하며 '사법부가 행정부와 협의하여 법을 운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 보장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2월 27일에는 법원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메시지를 반박하였습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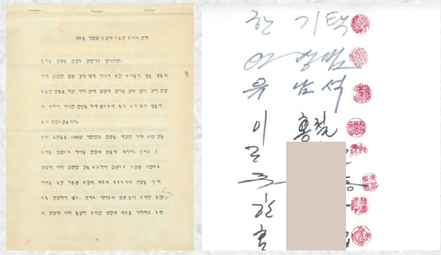
> *나는 단언하노니…지금까지 재판과 사법운영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어그러진 판단에 따라 한 일은 한 번도 없고 장래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법권의 독립운영에 대해서도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다.*[8]

이것이 법조계 내부에서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라고 호통쳤다.'라는 강렬한 어구로 압축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주요 일간지에 연재된 사법 역사물과 인물평전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법관을 독려하고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사례로 회자되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988년 7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기틀을 마련한 사법부의 정신은 이일규 대법원장에게 이어집니다. 이일규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상고심 판결에 소수의견을 여러 차례 낸 '대꼬챙이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상황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이 1988년 2월 25일 시행되면서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즈음, 6월 15일 소장 판사들이 서명한 성명서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9] 세칭 제2차 사법파동입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을 시작으로 성명서에 동의하는 법관의 서명이 200명을 넘어[10] 335명에 이르렀습니다.[11]

6) 제3대 국회 제22회 제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56. 2. 20.).
7) 사건 협의 받고 처리한 일 없다. 김 대법원장 비장한 결의 표명(경향신문, 1956. 2. 28.).
8) 한인섭, 제1공화국에서 사법의 정치-김병로 대법원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58권, 2019. 10. 433-476쪽.
9) 법조 정계 강타한 '사법부 정풍 선언'(동아일보, 1988. 6. 16.).
10)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1054쪽.
11) 1988년 6월 중순 당시 언론(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지면에 최종 집계된 공식 서명 법관의 수는 335명으로 보임. 당시 성명서를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故 한기택 고등 부장판사의 자료 기증식에 참석한 김종훈 변호사는 서명 법관수를 400명 이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함.

이 성명서를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故 한기택 고등부장판사의 유족이 기증한 자료 가운데 성명서 발표 즈음부터 며칠 간의 상황을 메모한 노트와 그 안에 넣어져 있던 김종훈 변호사의 성명서 초안[12]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홍철 변호사가 보유하고 있던 성명서와 서명원부도 수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홍철 변호사는 자료를 기증하며 성명서 작성 논의 과정과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의 서명을 받고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공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성명서 및 서명(이홍철 변호사 기증)



故 한기택 고등부장판사의 성명서 발표 즈음 상황을 메모한 노트

이런 상황 속에 7월 5일 이일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재석의원 292명 가운데 가 275, 부 14, 기권 3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제10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다소 흔들린 사법부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적지 않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의 확립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면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의 뜻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 사회는 법관들의 양심, 용기, 지혜를 믿고 있다면서 이제 조용한 실천과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외로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13]



제10대 이일규 대법원장 취임식(1988. 7. 19.)



대법원장 취임식 후 기자회견(1988. 7. 19.)

1909년 7월 절망의 시대를 지나, 1948년 7월 사법 독립의 뼈대를 세우고, 1988년 7월 사법독립의 영혼을 다시 깨우기까지 우리 법원의 7월에는 외부 권력과 끊임없이 싸우며 사법 주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온 위대한 투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한다."라는 헌법 규정의 평범한 진리가 지켜지기까지, 7월의 법원을 지켰던 수많은 분의 발걸음을 떠올려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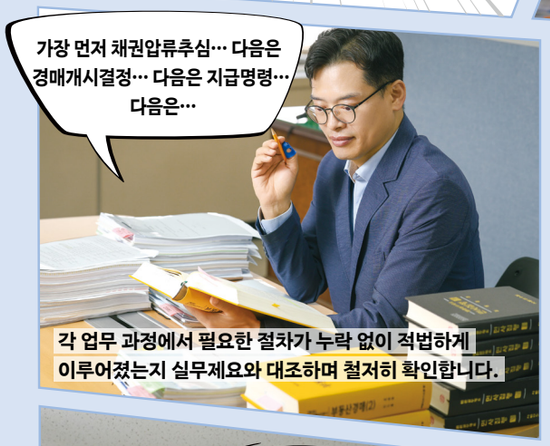
12) 1988년 당시 김종훈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판사로 성명서를 기초하였으나 그것을 바탕으로 성명서가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함.
13) 법원행정처, 『법원사』 1995. 1054쪽.

희망을 전하는 유쾌한 사법보좌관 김한의 보람찬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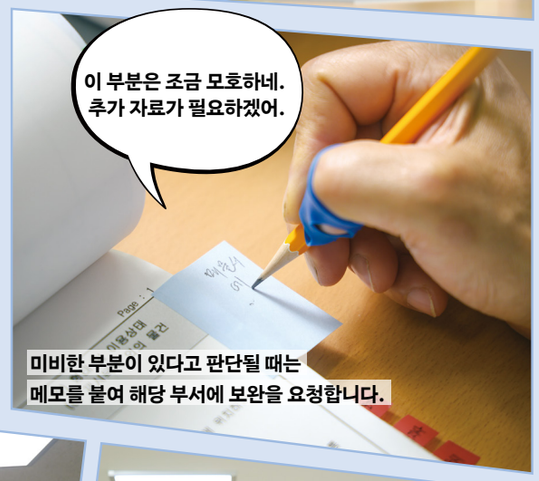
사진. 홍승진



출근하자마자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결재를 시작합니다.



각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누락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실무제요와 대조하며 철저히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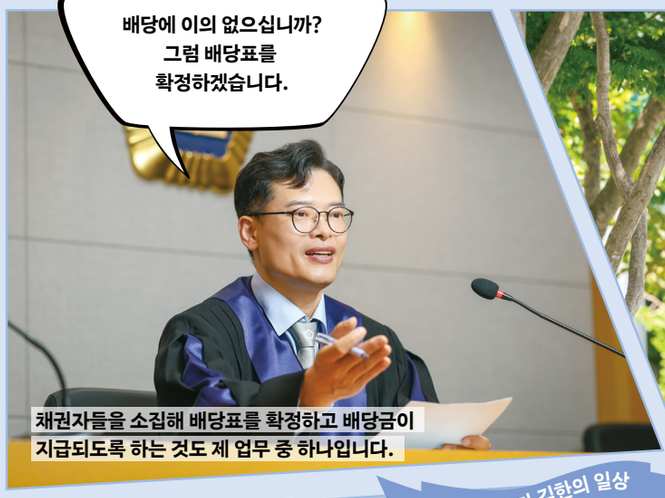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메모를 붙여 해당 부서에 보완을 요청합니다.



사소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어가며 신청인의 입장을 헤아려 봅니다.



결재가 끝나면 다리운동을 핑계 삼아 사무실에 사건기록을 전달하러 직접 다녀오기도 합니다.



채권자들을 소집해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도 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지급된 배당금이 채권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채무자에게는 새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뿌듯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소문난 효자 김한의 일상







유쾌한 농담으로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김한 사법보좌관님을 칭찬합니다!

Q. 사법보좌관님의 매력 포인트는?

"1인 2역을 소화하는 변신의 귀재! 주간에는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한 사법보좌관으로, 퇴근 후에는 홀로 농사짓는 모친을 돕는 효자 농업보좌관으로 변신!"

Q. 사법보좌관님은 평소 어떤 분인가요?

"매사에 꼼꼼, 성실, 열정이 넘치는 움직이는 비타민 충전기가 필요 없는 무한 에너자이저"

Q. 사법보좌관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유와 유머를 한 가득 안고 품은 채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짠! 하고 나타나는 우리 동네 이장님~"

절약과 청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생활 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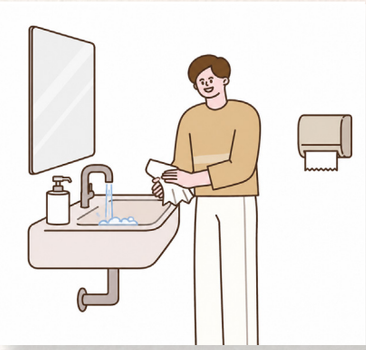
저도 이게 병인지 아는데, 이젠 고칠 수가 없네요~

글. 제주지방법원 김대만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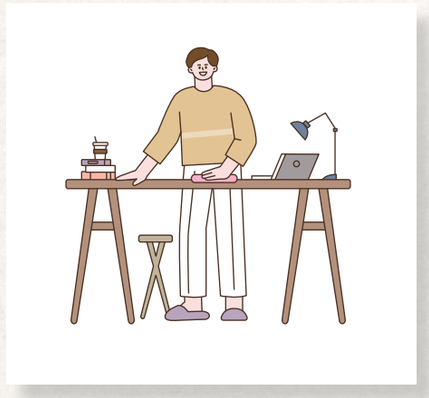
탄소중립과 자원 절약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나 캠페인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자원도 아끼고 주변 환경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일석이조 절약 노하우를 법원 가족들에게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의 첫걸음,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래전 조선일보 한현우 기자의 '살림하는 남자'라는 칼럼을 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지인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집 사모님은 같이 식사하다가 빈 그릇이 나오면 먹는 중간에 바로 들고 가서 설거지를 한다죠. 설거지뿐만 아니라 마른행주로 잘 닦아 본래의 자리에 놓아둔 후 다시 와서 식사하고…. 그러다 다시 빈 그릇이 생기면 또 바로 들고 가서…. 그러면서 그랬다죠. "나도 이게 병인지 아는데 고칠 수가 없네요. 호호호."라고요.



저에게도 고칠 수 없는 한 가지 깊은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 티슈를 손만 닦고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보통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티슈를 두세 장 정도 뽑아 손을 닦은 후 바로 버리잖아요. 그런데 전 그 티슈를 버리질 못합니다. 그럼 그 티슈를 바로 안 버리고 뭘 하냐고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저희 업무가 종이를 많이 다루다 보니 사무실 책상에 먼지가 많잖아요. 처음엔 그 티슈를 가져와서 책상을 닦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화장실 두세 번 정도 다녀오니까 책상을 두세 번은 닦습니다. 한번 닦을 때마다 책상 전체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한두 군데만, 딱 10초 정도만 닦습니다. 하루 세 번, 5일이면 15번, 한 달이면 60번 정도 닦게 됩니다. 딱 한 달만 이렇게 닦으면 책상은 더 이상 닦을 데가 없어집니다.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닦아도 될 정도가 됩니다.

처음엔 책상, 모니터, 프린터 정도를 닦아주지만 이게 자가발전을 하면서 차츰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모니터 뒷면, 책상 가림막 위 그러다가 책상 하단 쪽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게 됩니다. 바닥을 닦을 때는 티슈에 물을 넉넉히 묻힌 상태에서 바닥에 두세 장 정도 깔고 신발을 신고 발로 문질러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가발전을 하면 이젠 그 티슈들을 모으게 됩니다. 사무실에서는 주위를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석 달만 지나면 주위가 깨끗해지면서 티슈를 사용할 데가 줄어들어 티슈가 남아돌게 되거든요. 아무리 티슈가 남아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자리까지 청소해 준다며 설레발치고 다니기는 곤란하니 일단 모아둡니다. 그랬다가 이걸 집에 가져갑니다.

집에 가져간 티슈는 퇴근 이후나 주말에 운동 삼아 물 살짝 묻혀서 창틀이나 냉장고 닦아주면 좋습니다. 고기 구워 먹거나 생선 구워 먹고 불판을 1차로 닦아주어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건 비 온 다음 날 네 장 정도 물을 묻혀 현관 바닥에 놓은 후 신발 신은 발로 현관을 깨끗이 문질러 주는 겁니다. 두세 번 뒤 집으면서 문질러주면 현관이 정말 깨끗해집니다.



법원 화장실 티슈는 일반 티슈보다 잘 찢어지지 않기에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새 걸 가져가지 않아도 화장실 다녀올 때마다 사용한 것들만 모아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모을 때는 꼬깃꼬깃 대충 놓아서 말리지 말고 사각으로 두 번 정도 잘 접어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일단 말라버리면 다시 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처음부터 두 번 정도 잘 접어서 말리면 나중에 다시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용한 휴지를 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때는 이젠 병이 너무 깊어 치료가 불가능함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활용이나 잘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병에 걸리면 좋은 점을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버려도 되는 티슈를 재활용하기에 물자를 절약해서 쓰는 셈이 됩니다.



둘째, 남자들은 화장실을 다녀오면 보통 손끝만 살짝 씻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렇게 손끝만 살짝 씻으면 티슈가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손을 손목까지 깨끗이 씻은 후 티슈를 한 장만 사용했을 때가 먼지 제거하는데 가장 적당한 촉촉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손목까지 깨끗이 씻게 됩니다.

셋째, 손등은 물론 손목까지 손 전체를 골고루 씻은 후 티슈를 단 한 장만 사용했을 때 책상 닦기에 가장 적당하게 티슈가 촉촉해지기에 티슈를 여러 장 낭비하지 않습니다.

넷째, 젖은 티슈를 사무실에서 말리다 보니 미약하나마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말할 필요도 없이 사무실도 집도 정말 깔끔해집니다. 저희 법원에서 제 자리가 가장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진 못하지만 제 자리가 먼지만큼은 제일 없다고 자부합니다.

여섯째, 티슈는 나무를 베어서 만듭니다. 티슈 절약은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고 이는 곧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게 되므로 삶이 글로벌해집니다.

가끔씩 손 한 번 씻고 티슈를 대여섯 장씩 빼서 쓰는 사람들을 보면 '나 하나 이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를 읊조려 보곤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화장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티슈를 한 장씩만 사용해 주세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절약이 미덕입니다'와 같은 문구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상투적인 문구만으론 화장실 티슈를 절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게으름을 타파하는 방법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라든가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같은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99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을 찾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화장실 티슈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붙여 놓는 것보다는 이 글처럼 티슈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화장실에 붙어 있는 문구보다는 훨씬 더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도 운동 삼아 한번 해보세요. 물자도 절약하게 되고 주변도 깨끗해지는 게 은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걸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요. 이젠 화장실에서 사용한 티슈 한 장 그냥 버리려고 해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 게…. 저도 이게 병인지 아는데…. 이젠 고칠 수가 없네요^^.

제 강아지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글. 서울동부지방법원 양효은 주무관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살 때는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니 유기견 센터에서 산책 봉사를 했을 만큼 지금도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법원사람들〉에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코너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 강아지 친구들을 법원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 예쁘게 봐주세요~

양효녀: ISFJ, 12살, 왕소심 강아지

효녀는 제 본가인 제주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강아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부모님을 설득해 왔는데, 마침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키우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한 마리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효'를 돌림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강아지도 저희 막내라고 생각하고 효도하라는 뜻으로 '효녀'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효녀는 이름과 같이 퇴직하신 부모님의 말동무이자 산책 친구가 되어주며, 우리 집 막내이자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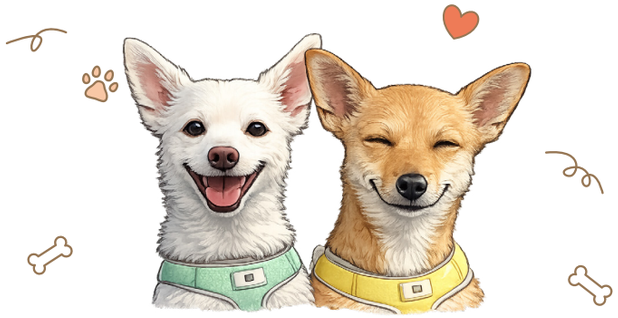
양우동: ISTP, 14살, 왕동안 강아지

우동이는 저희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올해 벌써 14살이나 되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3~4살 어린 강아지 같다고 할 정 도로 엄청난 동안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동이와 함께 산책할 때면 "어쩜 이렇게 귀엽냐"라는 칭찬을 자주 듣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어깨가 절로 으쓱해집니다.



제가 우동이를 만난 지는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쩌다 밤에 같이 잠자리에 들 때면 제 발밑에 자리를 잡고 잠든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동이가 나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 줬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이 깊어집니다.

사랑스러운 막내 우동이가 지금처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금 & 김후추: ENFP, 2살, 천방지축 강아지

소금이와 후추는 저희 언니가 키우는 반려견들입니다. 언니가 결혼할 무렵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유기견 센터를 방문했을 때, 원래는 한 마리만 데려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누렁이는 입양이 잘 안되어 내일이면 안락사 대상"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언니는 결국 흰둥이와 누렁이, 두 마리를 모두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함께 온 소금이와 후추는 원래 남매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를 꼭 닮았습니다. 아직은 에너지가 넘치는 '어린이 강아지'들이라, 가끔 산책을 시킬 때면 누가 누구를 산책시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제가 끌려다니기도 한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적처럼 만나 가족이 된 소금이와 후추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행복을 선물해 준 효녀, 우동이, 소금이, 그리고 후추.

이 작고 소중한 강아지들이 우리 가족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준 것처럼, 저 또한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저 편안하고 즐겁기만을 바랍니다. 비단 저희 강아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강아지가 더 이상 아프거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반려견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우리 곁을 지켜주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나를 믿어주는 고요한 여름밤

글. 편집실



한낮의 열기와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7월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몸을 누이면 문득 '내가 잘 해내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불면의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잃고 초라해지는 순간,
때로는 거창한 응원보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고요한 시간이 위로로 다가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고뇌로 가득 찬 시절에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다는 시인의 조용한 고백은, 타인의 시선이나 거친 현실 앞에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시인의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으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참 애써 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시인의 문장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되찾아 주는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달의 문장: 나를 되찾는 시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 「서시」

필사를 위한 여백

(위의 구절 중 마음이 머무는 문장을 천천히 옮겨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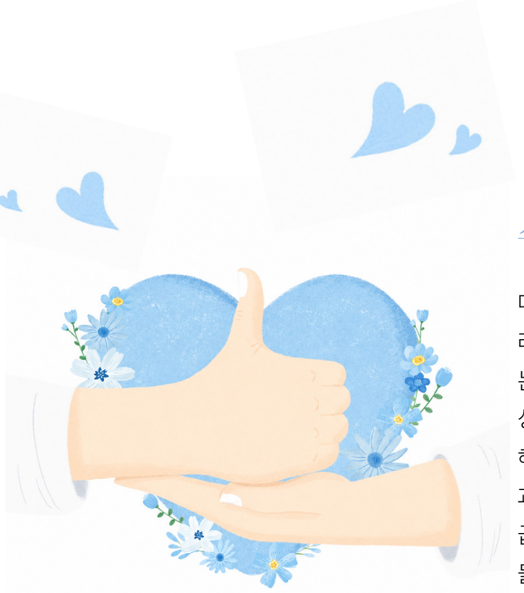
손끝에 스며든 청량한 진심 영화 〈청설〉

글. 편집실

투명한 햇살과 푸르른 하늘이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우는 여름, 청량음료처럼 맑고 깨끗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매미 소리조차 아득해지는 고요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뜨겁고 순수한 대화를 나누는 청춘들의 이야기, 영화 〈청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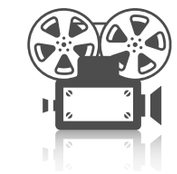
영화 〈청설〉 공식 포스터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소리 없는 세계에서 시작된 순수한 이끌림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의 문턱 앞에 방황하던 '용준'은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간 수영장에서 청각장애인 수영선수 동생 '가을'과 그런 가을을 지원하는 언니 '여름'을 만나며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주한다. 말이라는 음성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용준은 과거에 잠시 배웠던 수어를 기억해 내어 손짓으로 첫마디를 건넨다. 대화라는 소음이 사라진 순간, 용준과 여름은 오롯이 서로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손끝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영화는 여름날의 싱그러운 녹음과 부서지는 맑은 물방울을 배경으로 소리 대신 마음의 파동으로 소통하는 청춘의 로맨스를 감각적으로 포착해 낸다.

참된 소통이란
상대를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걸어갈
동등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영화 〈청설〉 스틸샷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배려와 동정 사이, 진정한 이해로 나아가는 법

영화 후반부,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체로 서고 싶었던 동생 가을과의 갈등 속에서 여름의 단단했던 세계는 균열을 맞이한다. 여름은 자신이 베풀어 온 헌신의 밑바닥에 어쩌면 동생을 늘 보살펴야 하는 약자로만 규정짓고 바라본 '동정'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닫는다. 나의 기준에서 상대를 안타깝게 여기고 베푸는 시혜적 배려가 도리어 상대방의 자립과 진짜 모습을 가두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다. 깨달음 끝에 여름이 마주한 해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용준이 자신을 동정 없이 그저 한 사람으로 대했던 태도, 그것이 바로 여름이 가을에게 미처 내어주지 못했던 태도였음을 알게 된다. 영화는 용준과 여름의 소통을, 그리고 여름과 가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조건과 오해를 걷어낸 자리에 남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신뢰와 연대를 보여준다.

편견의 소음을 끄고, 진짜 목소리를 듣는 일

영화 〈청설〉의 원제인 '聽說(듣고 말하다)'이 보여주듯, 진정으로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견을 비워내고 상대방이 미처 꺼내지 못한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다.
기계적인 하루 속에서 타인을 겉모습이나 처한 상황만으로 지레짐작하고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진심을 놓치게 된다. 참된 소통이란 상대를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걸어갈 동등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푸른 7월의 햇살 아래, 잠시 내 안의 시선을 되돌아보며 소음 속에 묻혀 있던 타인의 진짜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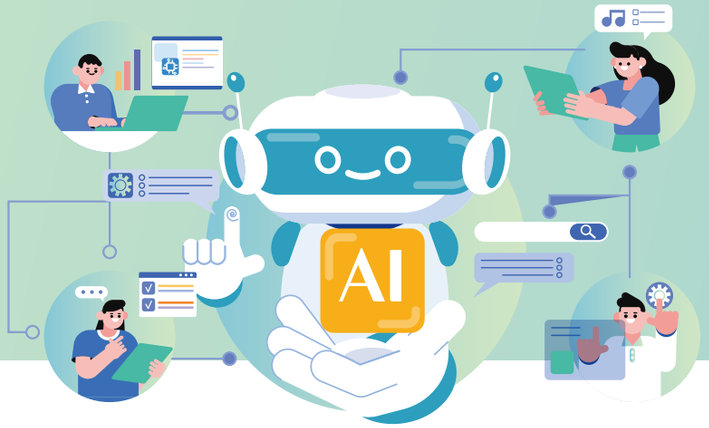
Movie Info

- 영화: 청설(Hear Me : Our Summer, 2024)
- 감독: 조선호
- 출연: 홍경, 노윤서, 김민주 외
- 줄거리: 여름과 용준이 수어로 소통하며 다가가고, 오해와 갈등 속에서 타인을 향한 시선과 진심을 깨달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량한 청춘 로맨스



함수 몰라도 OK!
말로 시작하는 AI 데이터 분석

글. 편집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만큼이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엑셀 파일과 수많은 숫자 데이터다. 예산 집행 내역 정리부터 통계 분석까지, 복잡한 함수와 수식 앞에서 작아졌던 경험이 있다면 주목하자. 이번 달 스마트 코트에서는 함수 마스터가 되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 업무를 돕는 'AI 엑셀 활용법'을 소개한다.

복잡한 함수는 외우지 말고 말로 물어보고 복사하자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찾아오거나 날짜를 계산해야 할 때, 인터넷에서 함수 형식을 검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곤 한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AI에게 말로 설명하면 상황에 맞는 수식을 제안받을 수 있다.

- How to 내가 처한 상황과 엑셀의 행·열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식을 요청한다.

- Case
  "A열에는 직원 이름이 있고, B열에는 부서명이 있어. C1 셀에 이름을 입력하면 D1 셀에 해당 직원의 부서명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엑셀 함수를 짜줘."라고 해보자. AI가 상황에 맞는 VLOOKUP이나 XLOOKUP 같은 함수를 제안하고, 필요한 셀 주소 예시까지 함께 알려 준다.



가독성을 높이는 시각화 아이디어를 추천받자

숫자가 가득한 표를 보고서에 그대로 넣는 것은 바람직한 서류 작성이 아니다. 하지만 막상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꺾은선형, 막대형, 원형 중 어떤 것이 적절할지 막막해지곤 한다.

- How to 데이터의 성격과 보여주고 싶은 핵심 목적을 AI에게 설명하고 시각화 방안을 제안받는다.

- Case
  "연도별 법원 민원 접수 건수 데이터가 있어. 지난 5년간 민원 접수 건수 변동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그래프가 좋을까?"라고 질문해 보자. AI가 적절한 그래프를 추천하고 최근 연도의 데이터를 강조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시각화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다.



방대한 Raw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자

수백 행에 달하는 지출내역서나 설문조사 결과 파일은 보고만 있어도 눈이 피로해진다. 이럴 때는 분석 도구를 켜기 전에 데이터 뭉치를 AI 비서에게 건네보자.

- How to Raw 데이터의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고 분석 역할을 부여한다.

- Case
  "이 데이터는 우리 부서의 상반기 소모품 구매 내역이야. 가장 지출이 많았던 품목 상위 3개를 정리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분석해 줘."라고 요청해 보자. AI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지출 품목과 소비 패턴을 정리해 주고, 예산 절감 포인트를 짚어 준다.

⚠ 주의사항: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라

AI는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모든 데이터를 아무런 고민 없이 입력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개인정보나 내부 업무 자료가 포함된 데이터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How to 데이터를 AI에 입력하기 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삭제하거나 익명화 한다. 특히 내부 보고서나 예산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관이나 회사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Check
  AI에게 분석을 요청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 추려 사용하고, 개인정보는 가급적 제거한 뒤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중요한 정보의 보호와 관리 책임은 결국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다. 복잡한 수식 입력은 AI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숫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층 가벼워진 데이터 업무와 함께 더욱 스마트하고 쾌적한 출근길이 되기를 응원한다.

센스 만점!

법원 N행시 짓기



짧고 강렬한 한 문장으로 당신의 재치를 뽐내주세요.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유쾌한 유머부터,
동료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문구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숨겨진 문학적 감수성을 깨워드립니다."

7월의 제시어

자유 **평등**

위 제시어 중 하나를 골라 도전하세요!(중복 참여 가능)

작성 예시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적인 열정으로 **유**연하고 활기찬 내일을 함께 꿈꿉니다.

참여 기간 2026년 7월 1일(수) ~ 7월 20일(월)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 스캔 후 제출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5명
※ 선정된 N행시는 8월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됩니다.



5인 증정

〈법원사람들〉 상반기 독자 설문조사 당첨자

김*진(1895)	박*라(7455)	손*아(2265)	이*욱(3205)	정*재(6193)
김*영(9587)	서*준(0797)	양*미(1205)	임*영(0951)	최*호(4799)

상반기 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에 진행되는 하반기 독자 설문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내가 〈법원사람들〉 주인공?!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삶의 지혜부터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반려 가족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을 지면에 기록해 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법원사람들〉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참여 마감: 매월 10일

참여 방법: 이메일 접수 courtpeople@scourt.go.kr

※ 원하는 주제의 원고 1편, 관련 사진 5장 이상

법원의 노하우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업무, 일상, 취미, 청소 어떤 분야든 OK!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특별한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나에게는 사소한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꿀팁이 됩니다!

※채택된 원고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우리집 진짜 주인



나만 보기 아까운 우리 집 귀요미를 법원 가족들에게 자랑할 기회! 일상에서 함께 웃고, 위로받고, 추억을 쌓아온 반려동·식물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반려동·식물과의 행복한 순간으로 〈법원사람들〉을 따스하게 채워 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되며, 보내주신 사진은 예쁜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글솜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솔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07
9 772951 224002
ISSN 2951-2247